

— F-91 —

소장의 증복낭종에서 발생한 유두상 선암 1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 외과학교실¹, 병리학교실², 중앙혈액내과학교실³

*강준구 · 신성재 · 서광욱¹ · 김영배² · 강석윤³

서론 : 소화관 증복낭종은 드문 선천성 기형으로 장관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회장 말단부가 가장 흔한 부위이며,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2배의 빈도로 발생한다. 증복낭종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매우 드물며, 대장이 흔한 호발 부위로 소장의 증복낭종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은 세계적으로 6례가 보고되었다. 저자들은 발열과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60세 남자 환자에서 수술적 절제를 통해 진단한 소장의 증복낭종에서 발생한 유두상 선암 1례를 국내 처음으로 보고한다. **중례 :** 60세 남자가 내원 전일부터 시작된 하복부 통증과 발열을 주소로 응급실 통해 소화기 내과에 입원하였다. 내원 당시 시행한 계통적 문진에서 1달 동안 4kg의 체중 감소와 구역과 구토가 있었고, 하복부의 동통 및 발열 소견이 있었다. 신체 검사에서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었으나, 급성 병색 보였고, 복부에 촉진되는 종괴는 없었으나 하복부 압통이 관찰되었다. 말초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증가된 소견 이외에 특이 소견 없었고, 일반화학검사는 정상이었다.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CEA(태아성암항원)이 10.65 ng/ml로 약간 상승된 소견 보였다. 상부 위장관 및 대장 내시경에서 직장 용종 이외에 특이 소견 없었으며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과 소장 조영술에서 공장 말단 부위의 협착과 함께 종괴가 의심되는 소견 보였다. 조직학적 확진 위해 시행한 소장 내시경에서 공장 말단부에 발적과 부종을 동반한 경성의 점막 병변 확인되어 외과로 전과되어 수술 시행하였다. 수술장 소견에서 공장에서 회장으로 이행되는 부위에 5 x 4cm 크기의 종괴 소견보여 소장 부분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조직검사에서 공장의 증복 낭종에서 발생한 임파선 전이를 동반한 진행성 유두상 선암 진단하였다. 환자는 현재 중앙혈액내과로 전과되어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행 중으로 경과 관찰 중이다. **결론 :** 소장의 증복낭종에서 발생한 종양은 세계적으로 6례가 보고되었고, 그 중 유두상 선암은 세계적으로 1례가 보고된 매우 드문 증례로 저자들이 경험한 1례를 보고한다.

— F-92 —

원발성 십이지장 B-미만성 대세포 림프종 1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서울백병원

*이종성 · 문정섭 · 장원철 · 옥경선 · 정태엽 · 허진국 · 류수형 · 이정환 · 김유선

서론 : 위장관 림프종은 가장 흔한 림프절 외 림프종이며 50-60%는 위에서 발생하고 20-30%만이 소장에서 발생하며 십이지장 림프종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위장관 B-세포 림프종은 말트 림프종이고 원발성 십이지장 B-미만성 대세포 림프종은 국내에서 보고된 예가 없으며, 십이지장 저도 말트 림프종에서 전환된 B-미만성 대세포 림프종 1예만 보고되었다. 저자들은 십이지장 궤양으로 발현한 원발성 십이지장 B-미만성 대세포 림프종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71세 남자가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과 가족력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환자는 2개월간 10 kg의 체중감소와 식욕부진, 공복시 속쓰림 증상이 있었으며 발열과 야간발한은 없었다. 신체검사와 활력징후, 혈액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십이지장 구부에 활동기 궤양과 유사한 병변이 관찰되었고 조직검사에서 십이지장염 소견이었으며 신속 요소분해효소 검사는 양성이었다. H.pylori 제균치료 및 궤양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요소날숨검사에서 음성을 보였다.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다 다시 악화되어 추적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전 십이지장 궤양은 경도의 호전이 있으나 날문구멍 쪽으로 궤양이 악화된 소견이었다. 다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CD20 양성 B-미만성 대세포 림프종이 진단되었다. 초음파 내시경 검사에서 십이지장 주변 림프절 종대는 없었으며 구강인두검사, 흉부단순촬영,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환자는 CHOP(cyclophosphamide, doxorubicin, vincristine, prednisone) 복합항암치료를 시행하였고, 6주기 치료 후 추적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궤양 흔적만 남아있는 완전 관해를 보이고 증상도 없어 현재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결론 :** 비전형적이며 특히 치료에 반응이 없는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서는 꼭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림프종 등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 한다.